

오대산에 얽힌 전설

세조와 문수동자

문수보살의 산인 오대산에 세조 때에 그 문수보살이 다시 옛된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왕위에 오른 바로 뒤에 괴질에 걸린 세조는 치병차 이 곳을 찾아 오게 되었는데 월정사를 참배하고 상원사로 올라가던 중 하도 물이 맑아 목욕을 하고 싶은 생각에 종자(從者)들을 물리치고 홀로 물속에 잠겨 몸의 괴질을 씻고 있었는데 동자 중 하나가 가까운 숲속에서 이를 지켜보기에 불러 세워 등을 밀게 하고 목욕을 마친 세조는 궁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별거 벗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왕의 체면에 어긋나기라도 하듯이 “ 어디 가서 임금의 몸을 씻어줬다는 말일랑 하지 말라 ”고 하자, 그 동자는 “ 대왕도 어디가서 문수보살을 직접 보았다는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 라고 대답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세조는 깜짝 놀라서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그제서야 몸의 종기가 씻은 듯이 나아있음을 알게 되니 세조는 병이 나은 것은 약효나 우연이 아닐뿐더러 오직 부처님의 힘이요, 등을 밀어준 동자야말로 문수동자의 화신임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해서 세조는 석공에게 문수동자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각을



▲상원사 문수동자상(국보 제22호)

하게 한 끝에 마침내 세번째에야 비슷한 동자상을 조각해서 **상원사**에 만들어 모시고 강릉 신석평 7백석지를 하사하여 매일 불공을 드리도록 했다고 한다.

상원사를 찾는 참배객들은 이 불상에게 가장 정성을 많이 드린다. ♣

세조와 고양이

병을 고친 세조는 이듬해에 다시 상원사를 찾아와 또 한번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하루는 불상 앞에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올리던 중 별안간 고양이 한마리가 다가와 곤룡포 자락을 물어 뜯고 잡아당기기에 처음엔 범상히 여기고 내쫓았으나, 그래도 옷자락을 잡아끌어 예감이 이상해서 사람을 시켜 법당 안밖을 샅샅이 살펴봤다.

그랬더니, 불상 뒤에 세조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자객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해 냈으니 세조는 바로 고양이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조는 그렇지 않아도 항시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터에 고양이에게 크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고양이 발’**이라는 묘전을 내리고 묘상(猫像)을 만들었으며 이후 고양이를 잡아 죽이는 일이 없도록 명했다고 한다.

고양이 상은 지금도 청량선원 뜰 돌계단 옆에 한 쌍이 서 있다. ♣

목조보살좌상

상원사 법당에는 문수동자상과 함께 목조보살좌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일명 **문수보살상**으로도 불리운다. 계곡에서 세조가 목욕할때 등을 밀어준 동자승을 조각케 한 것으로 역시 문수보살이 조성한 불상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세조는 문수보살의 화신인 동자를 그리며 안타까와하던 중, 하루는 한 촌노(村老)가 남루한 옷을 입고 나타나 조각할 뜻을 비치자 왕은 반가이 허락했는데 이 촌노가 조각한 상이 바로 왕이 친히 만난 **동자상** -즉 **문수보살상**이라 왕은 감탄해마지 않으며 촌노를 불러 칭송을 아끼지 않자 왕 앞에서 칭송을 받고 있던 촌노는 돌연 문수보살로 변신해서는 곧 사라져 버렸다.

결국 이 목조보살좌상도 문수보살이 조각한 것이며, 현재 유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돼 있다. ♣